

속담을 활용한 비교문화 교육안¹

—일본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金 希 京

Abstract

ことわざを通して、その言語が用いられている国や地域の人、そして各国の文化を知ることは有意義なことだ。特に日韓のことわざについては、中国の故事から由来した類似なものも多く存在しているため、言語・文化の教育に用いることがある。

本稿は、日韓ことわざを細分化し、教育用語彙リストの選定を試みている。調査対象の選定のため、まず学習教材と資格試験（韓国語能力試験）の頻度を基準にすること、そして動物を題材にしていることわざを中心に絞ることとする。この教育用語彙リストを活用するため、伝統文化の側面からは童話のストーリーテリングを用いた教授法、また現代文化の側面からは新聞記事、歌詞、ドラマの台本などを取り入れた教授法をそれぞれ提案している。いずれにしても本稿は学習者の自発的かつ積極的な自己学習を奨励する指導案を最優先の課題としている。そのため学習者の興味を沸かせる学習指導要領、そして問題の発見力、チームワーク（ディスカッション）、問題解決能力を向上する講義モデルを紹介している。

このように本稿は、ことわざを用いる教授法を提案しているものである。日本語話者を対象とする韓国語教育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の向上とともに比較文化的観点からの教育の充実を図るため、教育用語彙リストの活用方法、及び、比較文化的内容を盛り込んだ講義モデリング手法、その学習指導要領などについて考察している。

Key words: 諺、慣用表現、比較文化、語彙教育、韓国文化、文化教育、韓国語教育

1. 들어가며

속담은 한 사회 및 집단의 문화가 반영된 관용표현(idiomatic expressions)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논농사 중심의 농경 사회인 한국의 농촌 생활을 반영하고, ‘한류’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신조어는 대중문화의 전파력과 같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속담(old saying)의 본질을 꿰뚫어보기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다른 나라와의 영향 관

1 본고는 한국어학회·우리말학회 공동학술대회 발제문을 기반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를 전후로 도움 말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단 본고의 오류는 모두 필자의 소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계에서 비롯된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속담 본연의 의미를 비교문화적 관점(cross-cultural studies)에서 유추해내고자 한다. 동시에 본고는 한일 속담을 비교 대조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안(pedagogism)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자 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 어휘를 활용한 교수법 및 아시아 문화 교육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다.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속담은 한자 언어권에서 제법 심화된 논의를 거듭하며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알려진 한국과 일본의 속담은 사회 종교적 영향으로 그 변화 양상이 제법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어휘의 유입과 대체를 반복하면서 외래어와 고유어의 점유율이 변화하였다는 점, 언중의 심리적 변화,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사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신조어 등 다양한 변화 요소로 인해 어휘 체계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 및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자연 환경, 사회 문화적 요소 등 양국의 속담이 독자적인 일면을 가지게 된 것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문화 결정체로 알려진 속담은 이웃 언어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게 되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도 한일 속담을 대조 분석함으로써 문화의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속담을 활용한 문화 교육에도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속담을 어휘 의미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함으로써 문화 교육을 위한 어휘 항목으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일본어 화자를 위한 속담 지도안을 마련하여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2.1. 선행연구

한국의 문화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본질적인 논의와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개별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창환(1996)에서 언어 문화적 요소와 전통 문화로 양분한 논의와 김정숙(1997)에서 언어적 측면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및 감정까지 포괄해서 교육할 것을 제안한 논의를 꼽을 수 있다. 이해영(2002)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화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견되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화용 교육에 대해 논하였고 박노자(2000)에서는 문화적 다층성, 보편성, 독자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영순(2002, 2003)에서는 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정신 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제도문화, 문화재, 학문, 산업기술’을, 배현숙(2002)에서는 교재에 나타난 ‘의식주, 문화 명소, 무형 문화재,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권순희(1996)에서는 대조언어학을 바탕으로² 한국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 요소를 교

2 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에서 신체어, 형용사, 숫자 관념, 피동표현 등 영어와 큰 차이가 있는 관용어, 서법, 대명사 사용 등도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항록(2002)에서는 교육 범위를 ‘목표 언어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사실에 대한 이해 촉진’, ‘목표 문화에 대한 감정 이입’, ‘대표적인 성 위 문물에 대한 이해’에 두고 그 구성요소로 조항록(2004)에서 ‘의식주 문화, 역사문화, 민속문화, 시상문화, 관념과 가치관, 일상생활 문화, 제도문화, 예술문화, 문학’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문화의 의미 및 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은 한국의 문화 요소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포괄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용 속담 어휘에 대한 개별 연구로는 왕청청(2011), 임성욱(2011), 이정란(2015) 등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왕청청(2011)은 중국인 학습자, 임성욱(2011)은 스페인어권 학습자, 이정란(2015)은 캄보디아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속담 교육 연구로는 김경미(2016)와 정현미(2011)가,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에 주목한 박현주(2011)를 비롯하여 언어와 관련된 속담을 종합적으로 다룬 후쿠이 유이(2015)와 조정임(2008) 등과 같은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연구는 각국의 문화 배경과 비교 대조하여 특수성, 어휘, 문형(문법)의 난이도 등을 활용하여 교육용 속담의 등급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어 통합교과,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 속담 전문 교재를 참고하여 속담 목록을 선정하였다. 한편 속담 교재 개발 연구로 위에서 언급한 박현주(2011) 이외에도 김선정·김성수(2006), 최권진(2008), 진효정(2013)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먼저 김선정·김성수(2006)는 교육용 속담 선정 기준으로 사용 빈도, 사용 범위, 기본 의미, 학습자의 수준, 한국 문화 등을 기반으로 1급 15개, 2급 20개, 3급 25개의 교육용 속담 60개를 선정하고 등급화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최권진(2008)은 빈도수와 학습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진효정(2013)에서는 설문 조사와 한국어능력시험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선출하였다.³ 그리고 김정아(2002)에서는 중고급 화자를 중심으로 교육용 속담을 선정 분류하고 속담을 통한 학습 지도안을 마련하는데까지 나아갔다. 한편 김현정(2002)에서는 속담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내용 요소를 추출해 항목화하기도 하였다. 이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각 학습 단계에 맞춰 교육 목표를 정했는데 그 중 속담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교육용 어휘 분류를 바탕으로 문화 교육 지도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참조로 본 논의를 이끌어어나가고자 한다.

3 김선정·김성수(2006)는 삽화를 활용한 도입, 대화 제시, 속담 의미, 예문, 어휘 설명, 연습, 관련 속담, 어휘 확장을 통한 보충, 활용 등으로 교재안을 제시하였다. 도입에서 그림, 삽화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속담 제시가 단조롭지 않도록 대화, 설명, 연습, 보충, 활용 등의 다양한 구성을 활용하였다. 한국어 속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속담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한 체계적인 교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권진(2008)은 각 단원의 세부적 단계의 구성으로 속담 제시, 의미 제시, 기본 표현, 어휘 공부, 추가 학습, 문화 설명 등으로 하였다. 한국어 속담을 영어 속담과 비교·대조하여 제시하고 속담의 개별 어휘의 의미를 영어로 제시하여 한국어 사전이 개발되지 않은 특수어 학습자를 배려하였으며 속담과 한국 문화를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진효정(2013)은 머리말, 본 단원, 실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부록 등으로 하고 교수 요목은 한국어능력시험 속담 문항, 어휘, 문법 및 속담과 관련된 문화로 선정하였다. 교재의 단원 구성은 단원 제목, 학습 목표, 속담 제시, 어휘 제시, 문법 제시, 속담과 관련된 문화 제시, 속담 응용,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속담 문항 익히기, 보충 내용(유사 어휘, 문법 등) 순으로 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한 속담 학습용 교재라고 할 수 있다.

2.2. 분류안

본고는 한국어 속담이 가지는 의미 기준을 토대로 한국어와 일본어 속담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 양식을 비롯하여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속담에 나타난 다양한 어휘 의미가 학습 교재(teaching materials for education)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속담의 어휘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단순한 기능의 대비보다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변화, 발전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고는 속담의 언어와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태론적 분류법이 아닌 어휘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분류법을 취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분류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된다. 기본적으로 의미의 상관관계에 따라 동의, 반의, 다의관계로 나누어 주로 동의관계에 있는 속담을 다룬다. 그리고 이 동의관계의 속담을 완전 동의관계와 부분 동의관계로 나누어 살펴봄에 더불어 한일 유일무의의 속담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다. 본고는 부분 동의관계에 있는 속담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여 유의관계에 있는 속담의 효과적인 학습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유의관계의 속담에 나타난 어휘 의미적 특성에 주목하여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되짚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1>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 속담에 일본어의 유사 속담을 빗대어 어휘 의미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표 1. 유의 관계에 있는 한영일 속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雀百まで踊り忘れ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In trust is treason	飼い犬に手をかまれる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It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	牛追い牛に追われる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Speak of devil and he will appear	噂をすれば影がさす
범 굴에 들어가야 범 새끼를 잡는다	Nothing venture, nothing have(win)	虎穴にらざんば虎子を得ず
평 대신 닭	When you can't ride a horse, ride a mule	鯛なくば狗母魚
우물 안 개구리	A babe in the woods.	井蛙大海を知らず
소귀에 경 읽기	To sing psalms to a dead horse.	馬の耳に念仏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	Choose your companions well.	良禽は木を選ぶ

위의 예는 표현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적 상관관계(relevance)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동의관계에 놓이는 속담은 교육적으로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태적 차이와 달리 어휘 의미의 거리는 명확한 분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학습자에게 큰 곤란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을 위한 새로운 분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기존의 분류법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㉞ 일반적인 분류 방식

- (ㄱ) 이형이의
- (ㄴ) 이형동의
- (ㄷ) 동형이의
- (ㄹ) 동형동의

속담을 다룰 때 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어형(ㄱ-ㄴ) 또는 의미를 중심으로(ㄷ-ㄹ)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는 속담이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이형동의와 이형이의로 후자는 동일한 형태의 속담을 대상으로 의미관계에 따라 동형이의와 동형동의의 속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분류 방식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속담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조언어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분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분류법을 마련하기 위해 본고는 대치 검사법(substitution test)을 사용하여 유의관계에 있는 속담을 중첩과 포함으로 세분화한다. 이것을 통해 선별된 유의관계의 속담을 대상으로 구성 요소의 기본 구조와 의미 영역에 근거하여 포함(inclusion)과 중첩(overlapping)으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일 속담은 외형적, 의미적으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예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분류안을 제시한다.

㉟ 본고의 분류(안)

- (A) 이형완전이의
- (B) 이형부분이의
- (C) 이형부분동의
- (D) 이형완전동의
- (E) 부분동형완전이의
- (F) 부분동형부분이의
- (G) 부분동형부분동의
- (H) 동형완전동의

위 (A-H)의 분류안 중에서 구성 요소가 가지는 의미를 대조하는 데 유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별 속담들이 서로 다른 어휘를 취하는 경우는 이형완전동이의 속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서로 다른 세 지역의 속담 중 두 지역의 예만 유사하고 다른 한 지역의 속담이 조금 다른 의미를 나타낼 때⁴ 이형부분동의의 속담으로 분류하면 된다. 그리고 한 지역의 속담이 다른 지역의 속담과 공통분모가 없을 때는 이형부분이이의 속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형태와 의미를 지닌 경우 이형완전이이의 속담으로 분류 가능하다. 기존의 분류대로라면 이형동의어와 이형이어의의 두 가지 유형 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로

4 본고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속담으로 본다.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새로운 분류법 ㉔를 도용하면 이형동의를 이형완전동의를 속담과 이형부분동의를 속담으로, 이형이의의 속담을 이형부분이이의 속담과 이형완전이이의 속담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속담 유형을 대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고의 조사 대상 중 유의관계에 있는 속담의 예를 위의 분류안에 따라 묶어 본다.

<표 2. 분류안>

유형	특징 및 실례	형태	의미	예(한일)	비고
이형완전이의		◇□□○	□□□■	함홍차사 開けて悔しき玉手箱	지역별 속담 (인명, 지명, 고사 등)
이형부분이이의		◇□□□	□□□□	처녀가 늙어 가면 산으로 멧돌짝 지고 오른다 八百屋の賣れ残りのかぼちゃ	
이형부분동의		■□□○	□■□■	가는 날이 장날 渡りに船	긍부정의 태도
이형완전동의		■□□○	■□□■	새밭의 피 蚊の涙	
부분동형완전이의		□□□□	□□□■	식전 팔십 리 朝飯前	허기짐 하기 쉬운 일
부분동형부분이이의		□□□□	□□□□	한 입으로 문지 말고 두 눈으로 보아라 目で見て口で言え	관찰력 사전 조사
부분동형부분동의		□□□□	□■□■	물과 불과 악처는 삼대 재액 惡女房は一生の不作	
동형완전동의		□□□□	■□□■	지피지기 백전백승 彼を知り己を知れば百戰殆うからず	

위의 <표 2>는 ㉔를 기반으로 동형완전동의, 부분동형완전동의, 부분동형부분이이의, 부분동형완전이의와 이형완전동의, 이형부분동의, 이형부분이이의, 이형완전이이의로 구분하여 해당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대조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유형 분류로 본고에서는 한일 속담의 일부 예도 함께 제시한다. 비교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동형동의, 동형이의, 이형동의, 이형이의라는 단순 분류 지양하고 보다 세밀한 의미 양상을 다룰 수 있는 정밀한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류법을 적용하면 많은 수의 지역 속담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휘 의미적 정밀한 대조 분석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비교 연구를 위한 새로운 분류안을 제시해보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속담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지도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교육용 속담 선정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한국어 교육 어휘(2013)에는⁵ 중급 단계의 교육을 고려한 7종의 어휘 목

5 중급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용 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재는 게 편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갈수록 태산이다

록이 있는데 그 중 속담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⁶ 중급 교재의 속담 목록과 선행 연구(조주동(2011), 장지정(2008), 조문선(2013)) 간의 중복도를 중심으로 교육용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속담의 활용 방안으로 그 어원과 유래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속담 역시 관용표현과 마찬가지로 주제나 상황, 기능과 연계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가령,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와 같은 속담은 다툼, 논쟁 등의 학습 과정에서 제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개천에서 용 났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림의 떡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꿩 대신 닭
 낫말은 새가 들고 밭 말은 쥐가 듣는다
 누워서 떡 먹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등잔 밑이 어둡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배보다 배꼽이 크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세월이 약이다
 쇠귀에 경 읽기
 식은 죽 먹기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공든 탑이 무너지라
 금강산도 식후경
 꼬리가 길면 밟힌다
 꿩 먹고 알 먹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말이 씨가 된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병 주고 약 준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산 넘어 산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수박 겉 핥기
 쌀 게 비지떡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라
 우물 안 개구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짚신도 짚이 있다
 티끌 모아 태산
 하늘의 별 따기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6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1) 중급 단계의 어휘 선정을 위한 참조 목록 수집,
- (2) 개별 어휘의 빈도, 사용 범위,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어휘 빈도-타입(type)과 토큰(token)-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정,
- (3) 한국어 교사의 어휘 친숙도 조사와 전문가 평정 결과를 참고한 어휘 목록 조정,
- (4) 어휘 선정 지침에 의한 목록 정비

그 결과 3,855개의 어휘 목록이 선정되었는데 주로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한 중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으로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상황과 관련된 어휘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하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경고, 금지하기에서 다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밭 없는 말이 천리 간다’가 소문 관련 상황에서 소개된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는 위로하는 상황에서 제시되어야 효과적인 것이다.

한편 한국어능력시험에 출제되는 속담은 대체로 다음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급을 제외한 중고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표 3. TOPIK의 속담 출현 빈도>

회수 \ 레벨	초급	중급	고급
1	0	4	2
2	0	8	13
3	0	7	18
4	0	3	9
5	0	4	16
6	0	4	5
7	0	1	5
8	0	13	14
9	0	4	8
10	0	4	13
11	0	4	4
12	0	4	2
13	0	4	4
14	0	5	5
15	0	4	4
16	0	2	3

<표3>에서는 출현 빈도가 회수에 따라 제각기 달라 중급에서 10개 이상의 고빈도를 보인 8회 시험과 1회 및 16회에는 1-2개에 그치는 저빈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급에서도 평균 7.8을 넘나드는 TOPIK 회차가 주목을 끈다.

다음으로 한국어 속담 교재의 발간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2002) : 김정화, 최은규’를 비롯하여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1권(2006) 및 2권(2007) : 최권진’과 ‘살아있는 한국어(2007) : 김선정, 김성수, 이소현, 정재영’의 뒤를 이어 ‘알토란 한국어 어휘(2015) : 최권진, 송경옥’과 ‘한국어뱅크 NEW스타일 한국어 속담·한자 성어(2016)’가 각각 간행되었다. 이 교재는 주지하다시피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한편 이 밖에도 한국어 전래 동화, 고전 소설의 읽기 교재에서 속담을 다룬 교재로 ‘전래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2012)’, ‘전래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1-홍부와 놀부(2014년)’,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2015년)’ 등에서는 관련 어휘로 한국어 속담을 제시하였다. 그 뒤를 이어 ‘우리 문화야, 속담을 알려줘(2015) : 이영민, 민종철’과 ‘우리말 절대지식-천만년을 버텨갈 우리 속담의 품격(2016) : 김승용’ 등에서는 속담 관련 사진과 어휘 설명 등을 통해 속담 교육의 발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4년제 대학 교재와⁷ 시판되는 속담 전문 교재에 실린 속담 중 동물 속담을 발췌하여⁸ 전자는 중급과 고급으로⁹ 후자는 기타(etc)로 나누어 이것을 한국어능력시험 출제 횟수와 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속담의 출현 빈도>

실례	Intermediate	Advanced	etc	TOPIK	합계
가재는 게 편		1			1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2			2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은 못한다	1	3		3	7
개밥에 도토리		1			1
개천에서 용 난다		1			1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맞이하			1	1	2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2	2	1		5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곱다고 한다	1	1			2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				1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3			3
팽 구워 먹은 소식	1				1
팽 대신 닭		1	1	1	3
팽 먹고 알 먹고	1	2	1	1	5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5	1		4	9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1			1
다람쥐 쳇바퀴 돌듯			1	1	2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2				2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1				1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1	1	2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	1				1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1		1	2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1			1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난다		1		1	2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1				1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1	1	2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1		1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벌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1			1
산에 가야 벌을 잡지	1			1	2
산 입에 거미줄 치라	1			2	3
새 발의 피			1		1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	2	1	1	2	6
소귀에 경 읽기		1	1	3	5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3	3	1	2	9

7 본고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선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교재를 참고로 하였다.

8 전체 속담 중 동물 속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16.94%이고 한국은 24%에 달한다. 특히 포유류 중에서 가장 고빈도의 실현을 보이는 동물로 일본은 말, 한국은 개가 각각 차지하고 있다.

9 중급과 고급이 일본에서는 중급과 상급으로 표기되므로 여기서는 연구자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영문 표기로 대신한다.

쇠뿔은 단김에 빼라		1		1	2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다		1			1
얇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1	1	2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1				
우물 안 개구리	4	2	1	2	9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	2	1	1	6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3			3
장님 코끼리 만지 듯하다				2	2
전어 굽는 냄새에 나갔던 며느리 다시 돌아온다			1	1	2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1	3			4
큰 고기는 깊은 물에 있다		1			1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1	1	1		3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2	1			3
호랑이 담배 먹을 적		1			1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5		1	2	8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1				1

위의 <표4>를 통해 학습 교재에 선정되어 있는 속담 중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등은 한국어능력시험에 출제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님 코끼리 만지 듯하다’를 비롯하여 ‘전어 굽는 냄새에 나갔던 며느리 다시 돌아온다,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맞이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얇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와 같은 속담은 전문 교재에만 실려 있는데도 자격시험에는 출제 경험이 있는 속담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선정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조사 대상을 선별하였다. 1차 조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속담 총 9605개와 ‘우리말 속담 큰 사전(송재선 1983)’¹⁰ 및 학습 교재의 출현 빈도와 한국어 능력시험 출제 경향을 참고로 어휘 목록을 선정한다. 2차 조사로 일본의 교

10 1차 조사 결과 사전에 등재된 동물 소재 속담의 몇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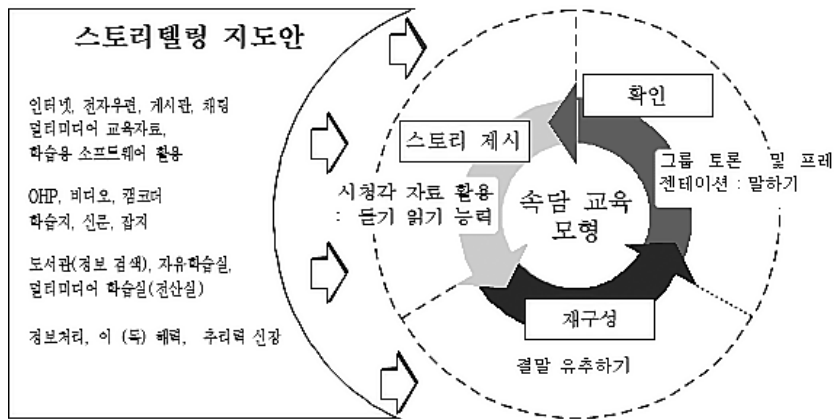
- (가) <개> 도둑놈 개 꾸짖듯 /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 / 개 머루 먹듯 / 개가 쿵얏 사먹고 버드 나무에 올라가겠다 / 개 보름 쇠듯 / 내 밥 먹은 개가 발뒤축을 문다 / 달 보고 짓는 개 / 사나운 개 콧등 날 없다 / 개발에 편자 /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개구멍에 망건 치기 / 삼살개 뒷다리 <강아지>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나) <소> 도둑놈 소 물 듯 /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 새끼는 시골로 보내라 /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이 없다 / 쇠귀에 경 읽기 / 쇠뿔은 단 김에 빼렸다 /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 /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큰 소 노릇 한다 / 힘 많은 소가 왕 노릇 하나 /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 /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얼음에 소 탄 격 / 황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다 <송아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 (다) <새> 뱀새가 황새 따라 가다간 가랑이 찢어진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새가 오래 머물면 반드시 화살을 맞는다 /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 / 참새 방앗간이지 / 참새가 죽어도 썩한다 / 오소리 감투가 둘이다 / 박쥐 구실을 한다
- (라) <범> 범에 날개 / 범 본 놈 창구멍 막 듯 / 범은 그러도 빠다귀는 못 그린다 / 범의 차반 /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 자는 범 코침 주기
- (마) <개구리> 개구리도 움쳐야 뛰다 / 개구릴 주저 앉는다 / 개구리 울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 /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다를 모르고 여름 벌레는 얼음을 모른다 / 왕머구리 굶듯한다

육용 속담 목록과 ‘故事俗信ことわざ大辞典(小学館 2012)’의 수록 어휘를 기반으로 기타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비교 대조한다.¹¹ 이런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시험에의 출제 경향과 교육 현황을 반영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동물류 속담의 교육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비교 문화 교육안

4.1. 동물 소재의 속담 교육안

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안으로 본고는 동물 소재를 중심으로 한 학습법을 제안하다. 다음 [그림 1]과 같이 동화를 이용한 어휘 학습 및 스토리텔링 지도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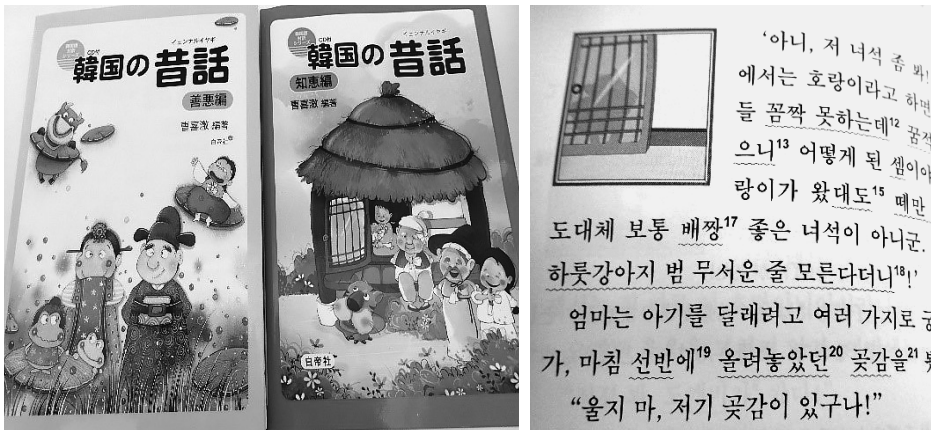
[그림 1] 속담 수업 모형

- (바) <말> 닫는 말에도 채찍질 / 장수 나자 용마 난다 / 사람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 새끼는 시골로 보내라
<망아지> 하룻망아지 서울 다녀오듯
- (사) <닭> 닭 잡아 먹고 오리발 / 닭이 친이면 봉이 하나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병아리> 알 까기 전에 병아리 세지 말라
- (아) <꿩> 꿩 먹고 알 먹고 / 꿩 대신 닭 / 꿩 잡는 것이 매 / 술개도 오래면 꿩 잡는다
- (자) <돼지> 멧돼지 잡으려다 집돼지 놓친다 / 언덕에 자빠진 돼지가 평지에 자빠진 돼지를 나무란다
- (차) <두꺼비> 두꺼비 씨름이라 / 두꺼비 파리 잡아 먹듯
- (카) <물고기> 도마에 오른 고기 /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맛이라 / 물어도 준치 썩어도 생치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타) <옹> 미꾸라지 먹고 옹트립한다 / 안 본 옹은 그러도 본 뺨은 못 그린다 / 개천에서 옹 난다
- (파) <기타> 빨리 알기는 칠월 귀뚜라미라 /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 고슴도치 외 따지듯 / 멧 태 한 마리 놓고 탄 전 분다 / 독 안에 든 쥐 / 모기 보고 칼 뽑는다 / 메뚜기도 유월이 환철이다 / 메기 잔등에 뺨장어 넘어가듯 / 메기가 눈을 작아도 저 먹을 것은 알아본다 /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 박쥐 구실을 한다 / 노루 본 놈이 그물 깊어진다 / 산 진 거북이요, 돌진 가재라

11 관용표현의 이론과 실제(2018)에서 주요 어휘 목록을 참조.

[그림 1]의 지도안은 동화를 이용한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먼저 초반에 영상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관심을 끌고 후반부는 학습자가 직접 유추해내는 활동으로 연계시킨다. 이야기의 전개를 추리하는 과정에서 이해력 추리력 신장과 더불어 관련 어휘의 습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스토리를 요약해서 말하는 활동을 이어간다면 학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 관련 어휘의 사전 조사를 예습 과제로 전체 이야기를 번역하여 보고하는 활동을 복습 과제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림 2] 교재 예①

먼저 한일 양국의 속담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해 다음 (1)에 까마귀와 까치를, (2)에 참새 관련 속담을 각각 제시한다.

- (1) (a)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b) 까마귀 열두 소리에 하나도 좋지 않다
- (c) 까마귀가 메밀을 마다 한다
- (d) 솔개 까치집 뺏듯

- (2) (a) 참새 방앗간이지
- (b) 참새가 죽어도 짹한다
- (c) 참새가 황새걸음 하면 다리가 찢어진다

동물은 인간의 벗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과 동물은 자연계의 생활 환경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국조 까마귀는 (1b-c)의 이미지와는 달리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1d)는 작고 연약하며 동화 은혜 값은 까치에서와 같이 때로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한편 이런 보은의 이미지는 동화 ‘鶴の恩返し’에 등장하는 학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 희생 정신을 발휘하는 동물로 그려져 있다.

(2a-b)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속담에서 참새는 작고 연약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나 일본 사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동화 속에서 참새는 지혜롭고 의리있는 동물로 등장한다.¹² 전래동화 ‘홍부전’의 제비의 역할에 하는 것이 바로 ‘舌切雀’ 속의 참새이다. 이처럼 특색 있는 동화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문화 교육에의 활용을 가능케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지도안은 다음 표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표 5. 속담 교육의 강의 모형>

교수단계	교수, 학습 활동 내용	심화 학습
1단계 자율 학습	<p>1. 선행 과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전략 ▶ 학습 동기유발-학습 동기유발 및 학습 전 관련 어휘 조사를 위해 스토리의 일부분을 미리 제시한다. 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동물 중 좋아하는 것을 작문 과제로 제시 <p>2. 자가 학습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전략 ① 학습자 스스로 스토리 전개를 예측 ②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설명을 피한다. ③ 학습자가 요약해서 기록 (메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및 학습자의 어휘력 확인을 위한 문제를 PPT로 제시하여 풀게 한다 예) 선비 학자 공부하는 사람 예) 구렁이 뱀 예) 동이 뜨다 해가 뜨다 예) 구하다 도와주다 살려주다 예) 은혜를 갚다 신세를 지다 은덕을 입다
2단계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전략 ① 유의어 반의어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른 작문 과제를 제시. ② 교사는 토론과 질문을 유도 ③ 학습자는 자유롭게 ‘결말이 가지는 의미(교훈, 메시지)’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전략 ① 한자를 시범으로 제시(報答, 知恩報恩, 粉骨報效, 盡忠報國 등) ② 어휘 의미 및 스토리의 재확인 ③ 사전 과제의 점검 및 토론 결과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마귀와 까치 관련 속담을 제시 예) 까마귀가 까치 보고 감다 한다 예) 까마귀가 까치 집을 뺏는다 예)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고 밤에 까마귀가 울면 대변(大變)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치와 까마귀에 대한 각국의 상반된 이미지를 확인
3단계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전략 ① 동영상, 애니메이션 제시청 ②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깨닫게 해준다 ③ 연습 문제를 통해 활용 능력 신장 ④ 학습자 간 질의 응답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표현 찾아보기. 예) 칠석날 까치 대가리 같다 예) 鶴の橋 (오작교) 예) 짐승도 은혜를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문 속에 알맞은 속담 넣기, 제시문의 제목 붙이기, 그림을 보고 대화문 만들기 등 학습 내용의 심화
4단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전략 ① 유사한 동화를 비교 대조 하기 ② 가치 관련 동요 개사 해보기(작문) ③ 속담을 활용한 대화문 광고문 시나리오만들기 : 쓰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게 한다. 예) 제비도 은혜를 갚는다:<홍부전> 예) 까마귀 무리에 해오라기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속담을 연결하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학습 내용의 재확인.

12 상세한 논의는 김응교(2008), 한국 「홍부전」과 일본 「혀 잘린 참새 舌切雀」, 그리고 문화교육 人文科学 41, 成均館大 人文科学研究所, 을 참조.

다음으로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속담 소재로 유의관계에 있는 한일 동물 속담을 함께 묶어 제시한다.

- (3) (a) 꿩 대신 닭
 (b) When you can't ride a horse, ride a mule
 (c) 鯛なくば狗母魚
- (4) (a) 개천에서 용 난다
 (b) 鷹が鷹を産む
 (c) 용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
 (d) 鯛の緒より鯛の頭。¹³
- (5) (a)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b) 河童の川流れ
 (c) 산 밖에 난 범이요 물 밖에 난 고기라
 (d) 陸に上がった河童

먼저 (3a)는 한국 속담에 출현 빈도수가 높은 꿩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유의 관계에 있는 일본 속담 (3, 4b)를 보면 해산물이 등장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리고 (4a)에서는 상상 속의

13 직역하면 도미의 꼬리보다는 정어리의 머리라는 뜻이다.

14 陸欣(2003)에서 조류를 소재로 한 속담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여 다음 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일본 속담에는 등장하지 않는 꿩이 한국의 경우 다수 실현되고 있어 주목된다.

〈표 6. 속담 속 조류의 출현 빈도〉

한국	중국	일본
새59(참새15,황새2,매기칼새1)	鳥43	鳥73
까마귀58(갈까마귀1)	雁16	烏(鴉)27
꿩25	雀13	雀26
매13	烏鴉12	鷹26
소리개11	燕子6	鶴22
까치9	鷹6	鶯14
기러기8	鸚鵡2	鳩11
부엉이7	1	8
제비4	1	時鳥3
비둘기3	鶴鷹1	鸚鵡3
갈매기2(백구1)	葦1	2
공작1	斑鳩1	雉子2
독수리1	儀子1	1
두견1	鴻鵠1	鶴鳥1
두루미1	鶯鶯1	1
딱따구리1	天鵝1	啄木鳥1
백로1	夜猫子1	鴛鴦1
수리1		
원앙1		
19종 207개	18종110개	17종222개

동물 ‘용’이 등장하고 있으나¹⁵ 일본 속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예라고 할 수 있다. 의미의 유사성(relevance)을 바탕으로 (4b)를 제시하였지만 사자성어 ‘竜虎相搏, 竜頭蛇尾’ 등에서 용의 존재는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속담에는 부재하는 ‘龍(용)’은 한국의 전통 문화 교육에¹⁶ 유용하며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하다.

반면 일본 속담 (5b, d)에는 ‘河童 (かっぱ)’가 실현되어 있는데¹⁷ 이것은 아무리 양국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 발전해왔다고 해도 섬나라 특유의 ‘河童(갓바)’를 소재로 한 예는 일본 속담에만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어휘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워 보이는 (5c)의 고기 역시 실존하지 않는 河童(かっぱ)와는 의미적 거리를 좁히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일무이한 어휘가 나오는 속담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유사 속담이 부재하며¹⁸ 저빈도의 실현을 보이는 ‘개밥에 도토리,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 난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큰 고기는 깊은 물에 있다, 호랑이 담배 먹을 적’ 등은 중급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학문 목적을 위한 학습 교재에서 소개되거나 일정 수준에 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15 현실 세계에는 등장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의 출현 빈도에 대해서는 陸欣(2003)을 참조할 수 있다. 중국에는 기린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속담에는 河童(갓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 주목을 끈다.

〈표 7. 상상 속 동물의 출현 빈도〉

한국	중국	일본
용50	龍29	龍22
기린7	鳳凰14	河童11
鳳7		鳳凰4
鳳2		騏驎3
鳳凰1		

16 이 밖에도 용을 주된 토착으로 하는 한족에 의해 이족으로 불렸던 동이족(東夷族)의 새를 지칭하는 鳳凰(봉황) 역시 상상속의 동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봉황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삼족오, 백제 금동대향로의 봉황, 신라 서봉총 출토 금관의 새무늬 장식, 고려의 봉황문 동경과 석관 상부에 표현된 봉황, 조선 궁궐의 정전 앞 층단 중앙 담도의 봉황문과 정전 천장에 장식된 봉황 등 우리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온 동물로 현재 대통령령의 문장 및 국새 장식에도 사용되는 등 그 맥을 잇고 있다.

17 이 갓바는 본래 かわ(川)에 わらは(童)의 변화형 わっぱ가 복합된 かわわっぱ가 변화하여 만들어진 말로 かわたろう(강의 아이)라고도 한다. 일본 전국에 퍼져 사용되고 있지만 그 호칭이나 형상은 각 지방에 따라 다른 것이 사실이다. 즉 갓바는 전설상의 동물 또는 미확인 생물체이며 ‘물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오니, 탕구와 함께 요괴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갓바신사, 갓바총(경총, 도구총) 등도 남아 있다.

18 ‘豚もおだてりや木に登る’나 ‘飼犬に手をかまれる, 牛に引かれて善光寺まいり, 能ある鷹は爪を隠す’와 같이 대응하는 한국 속담을 찾기 힘든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 꼽을 수 있다.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와 삶을 함께 하는 가축, 반려동물, 벗으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 속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고양이를 다룬 속담을 통해 문화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6) (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나) 고양이 덕은 알아도 며느리 덕은 모른다
- (다) 소리 없는 고양이 쥐 잡듯
- (라) 고양이가 세수를 하면 비가 온다
- (마) 도둑 고양이 더러 제물 지키라 한다
- (바) 고양이가 반찬 맛을 알면 도적질은 하지 않고 견디지 못한다
- (사) 내 마신 고양이 상²⁰
- (아) 괴발개발
- (자) 머리 검은 고양이 귀해 말라
- (차) 양반의 새끼는 고양이 새끼요 상놈의 새끼는 돼지 새끼다

(7) (가) 猫の首に鈴を付ける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하늘에 방망이를 달겠다)

Rhyme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x3)

Rhyme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x3)

히! 옛말에

CD는 아무리 감싸도 떠난다

마스터링에 들인 돈 이게 무슨 짓

MP3 잠음 소리에 거리낌 따윈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퍼진

그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곳이라도 한 번 해야겠어

닭의 목을 쳐도 새벽은 온단다

닭의 목을 쳐도 새벽은 온단다

히! 세상이 바뀌었어

“난 며칠 새 굶었어!” 그러곤 원 나잇

오늘만 멋지게 굴어서 한명만 낚자

거 참 재밌지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어이, 관 가르고 뭐하는데

정말 볼 수나 있고? 눈 가리고 아웅

개구리 울챙이 적 생각 못하듯

주워 담으려 예쓰다 보면 더 뒤쳐질 뿐

세상은 박힌 돌 빼내려고 굴러간다

20 ‘고양이 낙태한 상, 식혜 먹은 고양이(괴) 상 같다’도 잔뜩 찌푸려서 추하게 생긴 얼굴을 이르는 말로 유의 관계의 속담에 해당한다.

속닥속닥 이젠 깨어나 보게

속닥속닥

십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사양 산업 이미 자라 나버린 온라인에 투자해야 살아 남어

마치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들에겐 소귀에 경 읽기

내 앨범을 바라보는 처지를 아는지

허탈한 맘에 속 터지는 천한 버릇

미신 따윈 안 믿어도 맘 같아선 살풀이

밑져야 본전이겠지 지금 이 최악에선

매일 땅을 쳐도 세월은 간다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던 우리나라

찾아나서는 남녀들이 늘어나

요샌 웬만해선 XX들도 없다는데

‘성적 문란’과 ‘성적 자유’ 박 터지게 싸우지

보수와 진보, 둘 사이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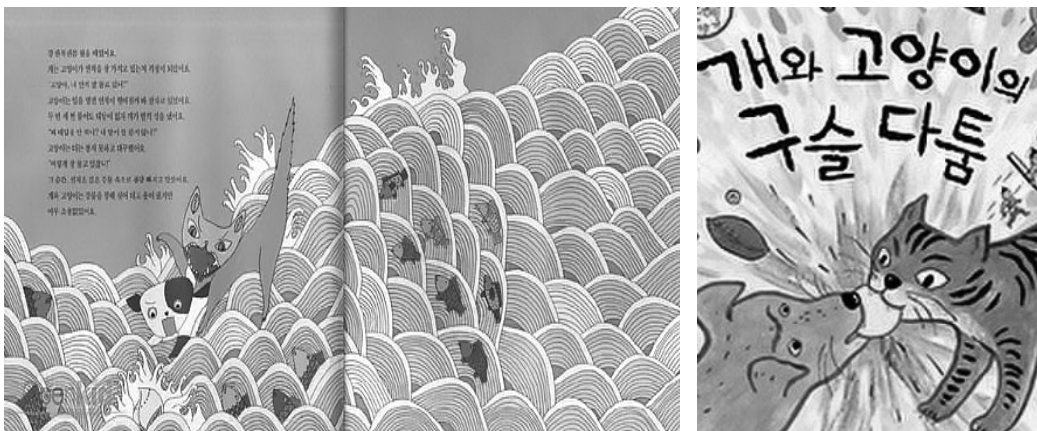
어린 것들은 언제나 문제야 뭘 하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얼질러진 물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 (나) 猫の手も借りたい(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
- (다) 猫に鰹節(고양이 앞에 고기 반찬)
- (라) 猫の前の鼠(쥐가 고양이를 만난 격)
- (마) 猫の魚辭退(고양이가 쥐를 마다한다)
- (바) 猫小判(돼지에 진주, 고양이 수과 쓴 것 같다)
- (사) 猫は三年の恩を三日で忘れる(고양이 덕과 며느리 덕은 알지 못한다, 밤 잔 원수 없
고 날 샌 은혜 없다)
- (아) 猫糞を決める(꿀 먹은 병어리요 (침 먹은 지네))
- (자) 犬は人につき、猫は家付きの人につく(개 새끼는 짓고 고양이 새끼는 할킨다)
- (차) 猫も杓子も(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 (카) 犬猿の仲(개 고양이 보듯)

고양이 관련 속담은 한국이 5-6%를, 일본은 11%를 차지하는 등 일본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할 뿐 아니라²¹ 사용폭도 후자가 매우 넓은 편이다. 실제 일본 속담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그림 4]에서와 같이 고양이의 고유한 능력, 능숙한 솜씨, 예의 바름, 지혜가 많음, 자연현상을 예지함 등 대체로 긍정적인 속성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 한국 속담에는 (6다-라)와 같이 능수능란하거나 자연현상을 예지하는 능력을 가진 긍정적인 고양이를 그려낸 소수를 제외하면 대체로 (6마-바)와 같이 고양이를 도둑으로 취급하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도적고양이가 살짜라, 도적고양이 범 물어 간 것만 하다, 도적고양이 제상(제청)에 오른다, 도적고양이 코 세다, 먼저 바꾸자고 할 때에는 도적고양이가 있기 때문이다’ 등 부정적인 이미지의 실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는 (7마-아)와 같은 욕심과 겁이 많고 배은망덕한 즉 부정적인 이미지의 고양이 속담을 다룰 때는 학습자에게 특별히 주의환기를 시켜야 한다.



[그림 3] 교재 예③

21 정유지(2004:44) 참조.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은 대체로 전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용 빈도 면에서는 말이나 개와 소 등의 사용 빈도가 대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²² 다음과 같이 한국과 일본 동화 중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동화의 예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육법이라 할 수 있겠다.

[교재 예④]

<p>개와 고양이 동화 (한국편)</p>	<p>옛날 어느 바닷가에 늙은 부부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잇고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이 큰 잉어를 잡게 되었는데, 잉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가엾어서 놓아주었다. 다음날 노인이 바다에 가니, 한 소년이 나타나 용왕의 아들이라고 하며 노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를 용궁으로 초대하였다. 용왕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보배 구슬을 얻어 돌아온 뒤, 노인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노파가 속임수를 써서 구슬을 가져가 노인의 집을 다시 가난해졌다. 그 집에서 기르던 개와 고양이는 주인의 은혜를 갚고자 이웃 마을 노파의 집으로 찾아가서 노파의 집 취왕을 위협하여 구슬을 되찾게 되었다. 돌아오던 중, 강을 건널 때 개는 해엄을 치고 고양이는 등에 업혀 구슬을 물고 있었는데, 개가 구슬을 잘 간수하고 있는냐고 자꾸 묻자 고양이는 대답하다가 구슬을 물에 빠뜨렸다. 그 책임으로 서로 다투다가 개는 집으로 갔지만, 면목이 없어진 고양이는 강 건너편에서 물고기를 얻어먹다가 그 속에서 구슬을 찾게 되어 주인에게 가져다주었다. 주인은 고양이를 우대하고 개를 집 밖에 거처하게 하고 박대했으므로, 그 뒤부터 둘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p>
<p>개와 고양이 동화 (일본편)</p>	<p>昔、村はずれの鍛冶屋の権助さんの家に、猫のニャン五郎と犬のワン吉が住んでいた。 ある日、権助さんは自分の作った道具をかついで街に売りに行くことになった。権助さんは、くれぐれも居眠りしないでちゃんと留守番をするようにニャン五郎とワン吉に言いつけ、家を出て行った。 権助さんが出かけると、ニャン五郎は昼飯を食べようとワン吉に言い、魚を持ってきた。「こりゃまずい。ご主人様の夕飯のおかずだよ」と、ワン吉が言うのも聞かず「食ってしまえばそれまでよ」と言ってニャン五郎は魚を食べてしまった。そして、ワン吉には頭としっぽしか残さないのだった。 昼飯を食べたら眠たくなってきたので、ニャン五郎はご主人様の言いつけも構わず、縁側で昼寝を始めた。これを見ていたワン吉、しばらくして自分も眠くなってきたので、今度は自分が寝る番だとニャン五郎に言う。 するとニャン五郎は、隣で昼寝されると自分も眠たくなるので庭で寝ろと言うのだ。仕方なくワン吉は、ござを敷いて庭で寝ることにした。 ワン吉が寝ている間、なんとか目を覚ましてしようとするニャン五郎だが、次第にウツラウツラし出し、とうとう我慢できずに縁側で眠ってしまった。 さて、そうしている間に、家には留守を狙った空き巣が忍び込んだ。ところが二匹とも眠りこけていたので空き巣が入ったことに気が付かず、空き巣はこれをいいことに、家財道具一式を盗んでいってしまった。 ニャン五郎は、ご主人の権助さんが帰る頃にハッと目を覚ました。家の中を見渡せば、家財道具など目ぼしいものは全部盗まれている。慌てたニャン五郎は、徳利を頭につけて傷を作り、腕に包帯を巻いて囲炉裏の灰の中にもぐった。そして権助さんが帰ってくると、自分はこの通り泥棒と闘ったが、ワン吉は泥棒など構わず外で昼寝をしていたと言って、空き巣に入られた責任をワン吉一人に負わせてしまったのだ。 怒った権助さんは、それ以降ワン吉が家の中に入るのを許さず、ワン吉は庭で食事をとることになった。 こんな訳で、今に至るまで猫は座敷で食事をし、犬は外で食事をしているのだそうだ。</p>
<p>활용 과제 (번역, 토론, 발표 등)</p>	<p>개와 고양이가 실내외로 각각 생활 환경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반려동물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동물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일본의 동화 ‘ネコの恩返し’에 나타난 고양이의 속성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다음 중 은혜 값은 동물들 다른 한국 동화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a) 은혜 값은 까치 (b) 은혜 값은 호랑이 (c) 은혜 값은 학 (d) 은혜 값은 여우 (e) 은혜 값은 두꺼비</p>

22 陸欣(2003:85)에 따르면 포유류를 소재로 한 속담은 한국 753개, 중국 649개, 일본 628개로 각각 10.4%, 9.9%, 8.6%를 차지한다.

위 (6차)는 양반을 통해 조선 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다루어지는 고양이의 다양한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예이다. 위 [그림 3]의 이야기 전개에 따라 고양이와 개의 속성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교재 예④]와 같이 한일 동화의 비교 대조로 연결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비교 문화 교육의 일정한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동화에 나타난 동물 소재의 속담에 주목하여 그 교육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상반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까치와 까마귀 속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 속담에서 최다 빈도수를 자랑하는 고양이 속담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도 주목해보았다.

효율 높은 속담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노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멀티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동화, 민담, 전설 등 스토리텔링 기법을 응용한 자가학습법, 신문 기사나 출신 지역의 동화를 번역, 발표하거나 광고문, 대화문의 작성 등 팀활동을 통해 중고급 학습자들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글을 나오며

한국과 일본의 속담은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유사 속담에서부터 상호 연관관계를 찾아보기 힘든 유형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본고는 한일 속담의 유형 분류를 통해 교육용 어휘 목록의 선정을 시도했다. 유의관계에 있는 속담을 보다 세분하여 의미적 거리에 대해 재고해보았다. 조사 대상의 선정을 위해 학습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에 고빈도 출현을 보인 속담 중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을 뽑아 냈다. 한국의 전통 문화 교육을 겸하여 전래동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학습자의 자가학습을 유도하는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현대의 대중문화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신문기사, 노래 가사, 드라마 영화 대본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스스로 문제 발견, 팀활동,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강의 모형을 만들었다.

본고는 속담 학습 사전 제작을 위한 중간 논의로써 일본어 화자를 위한 속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교육기관과 달리 일어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고급 학습자의 수가 미비하다는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중급 학습자를 위한 활용 방안이 그친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고급 학습자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도안을 마련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 교육기관의 연계와 함께 속담용 전문 교재 개발, 자격시험 평가 자료의 공유 등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적 및 논문〉

- 김인현(2001), 한일 대조 언어학적 연구, J&C
 김중택(1971), 이디엄 연구, 어문학 25, 한국어문화회
 김희경(2006), 관용어구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김희경(2006), 속담을 통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한중일 속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어문학연구회

- Kimheekyong (2006), The contrastive study of Idiomatic Expressions, 松山大學論集 18-4
- 김희경(2018), 관용 표현의 이론과 실제, 이새의나무 출판사
- 노수련(1936), 관용어와 어법에 대한 고찰, 조선어학연구회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국어학 34, 국어학회
- 박현주(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일 속담 비교 연구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논문
- 卞相範(2004), 일본어 복합 동사의 유형 분류, 일본어문학회
- 손칠호(1998), 한일 양국의 관용어 비교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 육 혼(2003), 한일 일한 속담 비교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 임팔용(2002), 일한 양국어 관용적 표현의 대조, 明治書院
- 정유지(2004), 한·일 동물 관련 속담의 비교 연구-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논문
- 정현미(2011), 한·일 속담 비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외대 석사논문
- 후쿠이 유리(2015),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에 관한 연구 : '말'과 관계된 한국어 속담 교육을 중심으로, 선문대 석사논문
- 황희영(1978), 한국 관용어 연구, 성곡논총 9, 성곡학술문화재단
- Collins Cobuild(1996), Pocket Idioms Dictionary, Univ. of Birmingham, Harper Collins
- Cruse D. A.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
- Jacobs Jeffrey C. (1998), Changing notions of Idioms and the effect on second language teaching, 인문과학연구, 안양대
- Nippold. M. A. (2001), Idiom Understanding in Preadolescents synergy in Action, American Journal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 Wood Mary Mcgee (1986), A definition of Idiom, In linguistics club Syntax & semantics, Indiana Univ. Linguistic Club, Bloomington

<사전류>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속담사전, 2013
- 금성 편집부,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2005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성구속담사전, 2006
- 박영준·최경봉 편, 관용어 사전, 태학사, 1996
- 손낙범, 일한, 한일 관용어사전, 국제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8
- 송재선, 우리말 속담 큰 사전, 서문당, 1983
- 신기철,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0
- 원영섭, 우리 속담 사전, 세창출판사, 1993
- 유화식, 일본어 중국어 관용어법사전, 일한관용구형예해 사전(부록), 일본실업출판사, 1960
- 이희승,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2.
- 정종진, 한국의 속담대사전, 2006, 태학사
- 조희철, 한국어 사전에 없는 속담 관용표현, 백제사, 2004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2002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 현대언어연구회, 관용구 용례 신사전, あすところ출판, 1993
- Japanese Dictionary for Reading Chinese Letters, 시사문화사, 1997
- Verisbergs. A., Idiom Transformation, Idiom Translation and Idiom Dictionary, Copenhagen, 1994
- 朝和辭典, 白水社, 2005

創元社編集部, 日英比較 ことわざ事典, 創元社, 1981
小学館辞典編集部, ことわざ辞典, 小学館, 1995
三省堂編集部, ことわざじてん, 三省堂, 2003

〈기타 자료〉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
한국속담사전(krpia.co.kr)
한국어교재(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전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교재)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과거문제집